

공공도서관 온라인 목록의 보강된 콘텐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riched Contents of OPAC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윤 정 옥(Cheong-Ok Yoon)**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주요한 발견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전두환 회고록』의 사례 |
| 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 2. 『반일 종족주의』의 사례 |
| II. 선행연구 | IV. 맺음말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OPAC이 제공하는 보강 콘텐츠의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하고 도서관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이다. 2019년 9월부터 10월 사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에서 검색한 『전두환 회고록』 소장 125개 공공도서관 및 『반일 종족주의』 소장 260개 공공도서관 OPAC을 조사한 결과, 책 소개, 요약, 서평 등 보강 콘텐츠는 대부분 알라딘 인터넷 서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제공하였으며, 출판사의 일방적 홍보성 책 소개와 본문 인용만을 포함하였다. 보강 콘텐츠는 서지레코드에서 '외부정보' 등 별도 필드에서 링크 제공, 서지레코드 내에서 직접 전부 혹은 일부 디스플레이, 책 소개를 포함한 여러 보강 콘텐츠를 바로 보여주는 방식 등으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객관적, 전문적 서평 없이, 출판사의 일방적 홍보성 책 소개와 본문 인용에 한정된 보강 콘텐츠는 이용자의 책 이해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움에 따라, 사서들의 적극적 평가와 직접적 작성 등 개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온라인 열람목록, 보강 콘텐츠, 논란도서, 『전두환 회고록』, 『반일 종족주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the enriched contents of OPAC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Examined are the OPACs of 125 public libraries which hold *Jeon Du-hwan Hoegorok*, and 260 public libraries which hold *Banil Jongjokjuui* retrieved from KOLIS-NET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from Sept. through Oct. 2019. The enriched contents of these controversial books are mostly provided by Naver, Daum, and Aladin Internet Bookstore, and their so-called summaries, reviews, etc. are actually only excerpts supplied by publishers. They are given only as a link to external sources or the whole or partial display in a bibliographic record. Since these enriched contents contain only publishers' promotional statements, but not any objective and professional review, they are not much useful for library users. Therefore,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librarians in creating or evaluating the enriched contents are proposed, especially for such controversial books.

Keywords: Public library, OPAC, Enriched contents, Controversial book, *Jeon Du-hwan Hoegorok*, *Banil Jongjokjuui*

* 이 논문은 2018-2019 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jade@cju.ac.kr)

•논문접수: 2019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9년 11월 27일 •게재확정: 2019년 12월 23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181-201,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12.181]

I.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도서관은 박물관, 아카이브 등과 더불어 오랫동안 일종의 집합기억을 보존하는 기관으로 여겨지며, ‘기억기관(memory institu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Stainforth 2016, 323-4). 도서관이 어떤 자료를 선정하여 장서에 편입시키고 이용자들에게 접근을 제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존할 것인지 결정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억될 내용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¹⁾을 기본 업무로 수행해야 함에 따라, 이들의 결정은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기억하게 되는 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공도서관의 책무는 민주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이용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우 엄격하면서도 공평무사한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어떤 힘에도 저항할 책임을 갖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에 기댄 무차별적 거짓정보의 흐름을 제어하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이들 생각의 확산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기여하게 되는 결과 또한 적극 방지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지자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수가 1,096개관에 이르면서²⁾,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 속에 도서관의 존재가 점점 더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에서 전국 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를 누구든 쉽게 접할 수 있고, 책바다 서비스를 통해 전국 도서관들 간 상호대차가 가능하며, 도서관 정보나루³⁾를 통해 도서관 별 장서 및 대출 관련 데이터가 종종 신문 등 대중매체의 기사로도 공개되면서, 이전에는 어느 도서관이 어떤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어떤 자료들이 대출되는 지가 대중적 관심의 공공 영역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개별 공공도서관이 어떤 자료를 소장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소장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인 온라인 열람목록(이하 OPAC이라 부름)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용자에게 보여주는지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많은 공공도서관 OPAC은 개별 자료의 기본적 서지정보와 더불어 표지 이미지와 서평 등 외부정보원에서 가져온 추가정보를 제공하고 있

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67호, 시행 2018. 3. 13.].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제28조(업무). [인용 2019. 10. 15].
2)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주요통계.”
<<https://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getPublicLibPop.do?title01>> [인용 2019. 11. 7].
3)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정보나루. <<https://www.data4library.kr/>> [인용 2019. 10. 15].

다. 이러한 추가정보는 이른바 차세대 도서관 목록 혹은 디스커버리 도구의 여러 기능들 중 하나인 “보강 콘텐츠(enriched content)”(Breeding 2007, Yang & Wagner 2010, p. 694)로 알려져 있다. 이 기능은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해외에서도 소수의 도서관 OPAC에서만 채택되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OPAC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보강 콘텐츠 중 특히 리뷰, 요약, 목차 등은 이용자들이 책의 내용 이해 및 이용과 대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추가정보이며, 대학도서관들은 이미 많이 채택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도태현, 정영미 2013).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OPAC이 어떤 보강 콘텐츠를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제공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미 보편화된 보강 콘텐츠가 서지레코드의 일부로서 이용자에게 어떤 추가정보를 주는지에 따라 실제 책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언급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OPAC이 어떤 보강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그 내용이 이용자들이 책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이 어떤 책임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전두환과 민정기 공저 『전두환 회고록』(자작나무숲, 2017)과 이영훈 등저 『반일 종족주의』(미래사, 2019)라는 두 권의 책과 관련된 공공도서관 OPAC의 서지레코드 및 보강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법원의 판결로 출판·판매 및 배포가 금지되었고, 『반일 종족주의』는 최근 일제강점기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왜곡되고 편향된 주장을 유포함으로써 커다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특별히 논란이 된 책들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다수의 공공도서관이 소장한 이 책들에 관하여 OPAC을 통해 기본적인 서지정보 외 보강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논란과 관련하여 그 논조를 분석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31일 사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에서 검색한 『반일 종족주의』 서지레코드 3건에 소장정보를 올린 260개 공공도서관 및 『전두환 회고록』서지레코드 3건에 소장정보를 올린 125개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와 OPAC을 조사하였다. 개별 도서관의 OPAC에서 검색된 이 책들의 서지레코드 각각에서 특별히 부가된 콘텐츠 중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평, 요약, 목차 등 추가정보의 제공 여부 및 내용, 정보 출처의 특성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공공도서관 OPAC을 전수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의 보강 콘텐츠 공급자의 전체 분포 현황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두 권의 책이 아닌 다른 책들과 관련된 보강 콘텐츠의 다른 특성이 있더라도 관찰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도 있다. 본 연구

의 사례 분석과 관련된 제한점은 차후 보강 콘텐츠에 관한 보다 포괄적 및 심층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십여 년 전 이른바 차세대 도서관 목록, 차세대 디스커버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도서관 온라인 목록의 기능을 확장하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할 때, 중요한 새로운 기능들 중 하나로 평가된 것이 외부 콘텐츠 연결이었다. 그것은 ‘보강 콘텐츠(enriched contents)’ 혹은 ‘확장 콘텐츠(enhanced contents)’라고 불리면서 서지레코드의 확장이라고 여겨졌고, 대체로 표지 이미지, 목차, 요약, 서평 등을 포함하였다(Breeding 2004, 57). 일찍이 OCLC의 OPAC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약, 초록, 목차 등 정보는 이용자들이 “검색에서 입수로 (Discovery-to-Delivery)” 가는 단계를 연결하는 핵심적 측면임을 발견한 바 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필요한 자료의 식별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이터 요소들로서 온라인 콘텐츠 링크/원문(36%), 더 많은 주제 정보(32%)와 더불어 요약/초록 추가(18%), 목차 추가(18%), 상세정보 탭에 더 많은 정보 추가(16%) 등을 요구함을 보고하였다(Calhoun 2009).

미국의 통합도서관시스템(ILS) 시장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보강 콘텐츠’는 특별히 서지 디스플레이를 보강하는 확장된 웹 OPAC 기능성으로서 인정되었고, Syndetic Solutions (2019년 현재는 ProQuest Syndetics Unbound⁴)로 운영), Baker & Taylor 같은 콘텐츠 전문공급자들에 의하여 제공되었다(Breeding 2004, 57). 이들의 등장 초반에 수행된 Yang & Wagner의 연구(2010)는 당시 상용 및 오픈 소스 디스커버리 제품들이 차세대 도서관의 12개 주요 기능 중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조사했고, Blacklight, VuFind 등 7개 오픈 소스 디스커버리 제품들 중 Rapi를 제외한 6개 제품, Aquabrowser 등 5개 상용 디스커버리 제품들 중 One Search를 제외한 4개 제품이 모두 ‘보강 콘텐츠’를 제공함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Yang & Hofmann(2011)은 미국과 캐나다의 260개 대학도서관 OPAC의 차세대 도서관 목록 기능의 채택을 조사하면서, 그 기능들 중 하나인 ‘보강 콘텐츠’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은 보강 콘텐츠는 책 표지 이미지, 논평, 기술, 평점 및 태그 클라우드 같이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포함하며, 도서관 이용자나 상업적 소스에서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p. 270). 이들은 조사 대상 중 126개 도서관 OPAC(46%)이 표지 이미지를 제공했고, 삼분의 일 정도(30-34개)는 Syndetics 혹은 Baker & Taylor’s Content Cafe 같은 유료 서비스, Amazon과 Google Books 같은 무료 서비스의 외부 소스에서 가져온 요약, 목차, 초

4) ProQuest Syndetics Unbound. Home Page. <<https://proquest.syndetics.com/>> [cited 2019. 10. 15].

록, 리뷰를 제공함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요약과 목차는 표준 MARC 필드에 추가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소스에서 가져온 확장된 형태의 요약/주석, 목차 등만을 통계에 포함시켰으며, 또한 논평, 기술, 평점/등급 등이 Google Books 같이 외부로 링크된 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OPAC 자체에 제시된 것만 포함시켰다(pp. 277-280).

Hofmann & Yang(2012)은 이전 연구(2011)에서 조사했던 260개 미국과 캐나다 대학 도서관 OPAC 인터페이스에서 제시된 내용이 이전 것과 달라졌는지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전 연구처럼 개별 차세대 도서관 목록 기능의 제공 여부를 상세히 분석하기보다, 전통적 통합 도서관시스템(ILS) OPAC의 이용, 패킷 네비게이션 기능의 추가, 전적인 디스커버리 도구의 채택 등을 분석했다. 주요한 발견은 디스커버리 도구가 불과 2년 사이 거의 2배 증가하였고(16%→29%), 디스커버리 도구를 사용하는 대학도서관의 96%는 아직 그들의 전통적 목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패킷 네비게이션 기능을 가진 ILS OPAC을 사용하는 도서관도 2배 정도 늘어났음을 포함하였다.

Deodato(2015)는 Rutgers University 도서관의 경험을 중심으로 웹 스케일 디스커버리 기능 평가의 5가지 요소 가운데 ‘가용성(Usability)’ 평가 하위요소로서 ‘보강 콘텐츠’를 들었다. Deodato는 표지 이미지, 목차, 저자 전기, 리뷰, 초록, 저널 순위, 인용계수 등 같은 제삼자 공급자가 가져오는 콘텐츠의 통합을 지원하는지를 평가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포함하는지, 추가 비용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Deodato 2015, 45, 58).

국내에서 도서관 OPAC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특별히 차세대 도서관 목록 기능과 관련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도태현과 정영미(2013)는 차세대 OPAC 기능을 간단검색창, 결과내 검색 등 27개 항목을 추출하여 우리나라 191개 대학도서관을 전수 조사하였다. 이들은 “풍부한 콘텐츠”는 “온라인서점이나 인터넷 검색엔진 등에서 제공하는 도서의 상세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연계해서 이를 서지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정의하며, 이용자가 검색 결과에서 특정 도서의 이용 또는 대출 여부 결정에 유용함을 지적했다. 151개 대학도서관 OPAC(82.5%)에서 채택한 “풍부한 콘텐츠”는 표지 이미지만 제공, 표지 이미지와 목차만 제공, QR 코드만 제공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적용됨을 발견하였다(p. 13).

윤정옥(2014)은 오픈 소스 검색 인터페이스 Blacklight를 사용하여 개발된 미국 Stanford University 도서관의 차세대 도서관 목록인 SearchWorks 기능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본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유영준(2011)은 디스커버리 인터페이스를 도입한 국내·외 9개 도서관의 패킷 네비게이션을 분석하였고, 또 다른 연구(2013)에서 국내 15개 대학도서관 목록에서 3개의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에서 패킷 네비게이션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차세대 도서관 목록 기능 전반을 검토했지만, ‘보강 콘텐츠’ 같은 특정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

Ⅲ. 주요한 발견

201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전두환 회고록』 소장 125개 공공도서관 OPAC과 『반일 종족주의』 소장 250개 공공도서관 OPAC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두환 회고록』의 사례

전두환과 민정기가 저술한 『전두환 회고록』은 2017년 4월, 모두 3권의 다권본으로 발행되었으나 엄청난 논란을 야기하였다. 2017년 6월,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및 조영대 신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 책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8월 4일,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7년 10월, 전두환 측은 회고록에서 허위사실로 지적된 부분만을 검은 색으로 덧칠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재출간하였고, 12월에 5·18 단체는 이 책의 출판 및 배포금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2018년 9월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회고록 일부 표현(1판 32개, 2판 37개)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사용, 광주 교도소 습격 등 5·18과 관련된 23개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보았고, “5·18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내려졌고, 역사적 평가와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 과정에서 무력적인 진압을 한 당사자의 자기 변명적 진술이 아닌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⁵⁾

이러한 판결은 공공도서관 장서에 포함된 『전두환 회고록』의 관내 이용이나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고, 도서관들의 조치가 실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8년 국립중앙도서관과 연세대 도서관, 서울시교육청 남산도서관에서는 법원이 판매·배포를 금지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의 대출이나 열람이 가능했던 것이 보도되었다. 이후 법원의 판매·배포 금지 결정 대상은 전두환 및 책을 출판한 전재국 측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책을 대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지만,⁶⁾ 여전히 도서관의 대응은 주목할 만한 문제이다.

가. 서지정보의 제공

5) 5·18 기념재단. 공식 블로그.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판결 (9.13).” <https://blog.naver.com/themay18/221358933863> > [인용 2019. 10. 28].

6) 판매·배포 금지 ‘전두환 회고록’ 1권...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버젓이 대출. 2018. 『경향신문』. 11월 26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60952001&code=940100#csidxbaeae3b9ceffe68c0c7863afe11847> [인용 2019. 11. 2].

2019년 10월 28일 기준, KOLIS-NET에는 『전두환 회고록』의 서지레코드가 모두 3건이 있고, 모두 125개 공공도서관이 이 책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 보는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이 서지레코드들에 임의로 레코드 번호를 1, 2, 3으로 붙여서 서술하였다. 이 책을 소장한 도서관들이 서지정보 및 추가적 책 정보 등을 다루는 방법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KOLIS-NET 서지레코드: 전두환 회고록 [검색: 2019년 10월 28일]

레코드번호	저작번호	분류기호	서명	소장 도서관(개)	검색 허용 도 서관(개)
1	UW20196069001	340.99	전두환 회고록, 3	19	1
2	UW20195295024	340.99	전두환 회고록, 2	15	1
3	UW20194695337	640.99	전두환 회고록	91	17
-	-	-	합계	125개	19개

『전두환 회고록』을 소장한 125개 공공도서관 중 단지 19개 도서관(15.2%)에서만 이 책이 검색되었다. 나머지 106개 도서관은 OPAC에서 이 책의 검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우선 KOLIS-NET의 레코드 1(저작번호 UW20196069001)은 『전두환 회고록』, 3권 「황야에서다 1988-현재」의 서지레코드로서 19개 도서관의 소장정보를 올렸으나,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등 18개 도서관에서는 검색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성남시 분당도서관 OPAC에서만 서지레코드가 검색되었다.

레코드 2(저작번호 UW20195295024)는 『전두환 회고록』, 2권 「청와대 시절, 1980-1988」의 서지레코드로서 모두 15개 도서관의 소장정보를 링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택시립안중도서관을 제외한 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 제주우당도서관 등 14개 도서관 OPAC에서는 이 책이 검색되지 않는다.

레코드 3(저작번호 UW20194695337)은 『전두환 회고록』 3권 전체 세트의 서지레코드로서 모두 91개 도서관의 소장정보를 링크하고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 정독도서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등 17개 도서관 OPAC에서만 이 책이 검색된다. 레코드 1과 2는 분류기호 340.99, 주제별 패킷 ‘사회과학’으로 분류된 것과 달리, 레코드3은 분류기호는 640.99, 주제별 패킷은 ‘예술’로 분류되어 있어, 오류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전두환 회고록』이 검색된 17개 도서관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유구도서관과 평택시립도서관, 3개관의 OPAC에서만 1권, 2권, 3권의 서지레코드가 모두 검색되었고, 나머지 14개 도서관 OPAC에서는 2권과 3권의 서지레코드만 검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평택시립도서관은 소장한 1권 「혼돈의 시대 1979-1980」이 2판임을 밝혔으나, 공주유구도서관은 판 사항을 밝히지 않아, 법원의 판결 이후 수정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4호)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지레코드 하단 ‘알라딘’이 제공한 ‘책 소개’를 통해 “광주 지방법원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2017. 8. 4)에 따른 내용 수정본”임을 밝히고 있다. 평택시립도서관은 NAVER가 제공한 ‘상세정보’를 추가하였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지레코드에 ‘자료 이용하는 곳’을 ‘4층 도서자료실(서고자료대출반납)’이라고 표시한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자료상태: 대출불가’로 대출 제한을 표시한 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 정독도서관이 유일하다. 이 도서관 OPAC에서는 2권과 3권의 서지레코드만 검색되었지만, 두 권 다 ‘대출불가’로 표시되었다. 나머지 도서관들은 ‘대출가능’으로 상태를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2권과 3권은 출판 및 유통에 대한 금지 판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출도 문제가 될 근거가 없다. 따라서 KOLIS-NET에 소장 정보를 올린 공공도서관들이 자관 OPAC에서 서지레코드까지 검색되지 않게 제한한 것이 적절한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나. 보강 콘텐츠의 제공

『전두환 회고록』의 서지레코드가 검색된 19개 도서관 OPAC에서 서지정보 외 보강 콘텐츠가 제공되는지, 그것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표 2>에 보는 바와 같다. 공주유구도서관 등 4개 도서관(21.1%)은 서지정보만 제공했다. 보강 콘텐츠를 제공하는 15개 도서관 중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독도서관 등 3개관은 알라딘 인터넷 서점(15.8%), 평택시립안중도서관 등 10개관은 네이버(52.6%)에서 가져온 내용을 제공하며 출처를 밝혔으며, 양산시립도서관 등 2개관(10.5%)은 간략한 책 소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보 출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

<표 2> 『전두환 회고록』 서지정보 외 보강 콘텐츠의 출처

구분	알라딘	네이버	미상	미제공	합계
도서관(개)	3	10	2	4	19
비율(%)	15.8%	52.6%	10.5%	21.1%	100%

1) 출처 미상

보강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도서관은 2개관이다. 가장 간략한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양산시립도서관⁷⁾은 K·CMS 자료검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책 소개’를 서지정보 하단에 제공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마침내 30년의 침묵을 깨고 출간한 회고록! 최초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 88 서울 올림픽 유치, 최초의 평화적 정권이양 등을 일궈낸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대통령. 12·12 쿠데타로

7) 양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yangsan.go.kr/00main/main.php>> [인용 2019. 11. 2].

권력을 잡고 5·18 광주사태로 수많은 민간인을 희생시킨 학살자. 이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전두환 전...”

양산시립도서관은 상기한 말 줄임표(...) 이후 완결된 형태의 책 소개 정보로 확장해주는 페이지나 다른 정보원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2권 「청와대 시절」과 3권 「황야에 서다」, 각각의 ‘책 소개’에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2) NAVER 제공 정보

보강 콘텐츠의 출처를 NAVER로 밝힌 공공도서관은 모두 10개관이다. 평택시립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⁸⁾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1권(2판), 2권(2판) 및 3권의 서지레코드가 모두 검색이 되었으며, 서지정보에 연결된 추가적 정보 공급자의 출처를 NAVER로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 책을 소장한 도서관은 평택시립안중도서관이지만, 14개 도서관이 함께 사용하는 통합검색시스템을 통해 이 책에 관한 정보는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

평택시립도서관 서지레코드는 ‘상세정보’에서 다음과 같이 NAVER가 제공한 책 정보를 몇 줄 소개하지만, ‘도서정보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바로 NAVER 책 정보 페이지로 연결시켜 준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에 선 전두환 前 대통령 마침내 30년의 침묵을 깨고 출간한 회고록! 광주 지방법원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2017.8.4)에 따른 내용 수정본이다.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공개되는 최초의 회고록! 최초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 88서울올림픽 유치, 최초의 평화적 정권이 양 등을 일궈낸...”

서지레코드에 2판으로 표시된 『전두환 회고록』 1권과 2권의 서지레코드에는 동일하게 윗글이 추가되었지만, 2판 표시가 없는 3권의 서지레코드에는 본 연구자가 밑줄로 표시한 “광주 지방법원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2017.8.4)에 따른 내용 수정본이다.”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 동일하게 제공된다.

한편 ‘도서정보 상세보기’로 NAVER에 링크되면, ‘책 정보’, ‘출판사 서평’ 및 ‘네티즌 서평’이 제공된다. ‘책 정보’는 ‘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의 다른 책’, ‘목차’, ‘이 책의 시리즈’, ‘출판사 서평’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인터넷 교보문고가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책 정보’에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는 각각 다음 <표 3>과 <표 4>에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⁹⁾

8) 평택시립도서관. 간략검색. 전두환 회고록. 1, 혼돈의 시대 1979-1980.
<<https://www.ptlib.go.kr/slib/index.do>> [인용 2019. 10. 31].

9) NAVER 책. 전두환 회고록. 1, 혼돈의 시대 1979-1980.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644662> [인용 2019. 10. 31].

<표 3> NAVER 책 정보: 『전두환 회고록』 책 소개

책 소개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에 선 전두환 前 대통령 마침내 30년의 침묵을 깨고 출간한 회고록!
광주지방법원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2017.8.4)에 따른 내용 수정본이다.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공개되는 최초의 회고록! 최초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 88 서울올림픽 유치, 최초의 평화적 정권이양 등을 일궈낸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대통령.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5·18 광주사태로 수많은 민간인을 희생시킨 학살자. 이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전두환 前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사건들의 중심에 서 있으며 수많은 굴곡과 험난한 인생 여정을 거쳐 온 산 증인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켜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모든 삶과 아직도 논쟁 중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의 준비기간, 방대한 기록과 수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펴낸 이 회고록에는 미처 말할 수 없었던, 말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때론 솔직하게, 때론 담담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회고록의 출간은 또 다른 논쟁의 시작인 동시에 새로운 역사관에 대한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표 4> NAVER 책 정보: 『전두환 회고록』 저자 소개

저자소개
전두환
저자 : 전두환
저자 전두환은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에서 출생. 국가의 부름을 받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졸업했다. 5·16 혁명 이후 정치 입문을 권유 받았지만 군 생활로 복귀했다. 1959년에는 미 육군 특수전, 심리전 교육을 수료했다. 1967년 수경사 30대대장 재임 중에는 김신조가 이끄는 북한 특수부대를 저지하는 공을 세웠다. 1970년에는 9사단 29연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수많은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1973년 1월, 육군 준장으로 진급했으며 1977년 2월에는 육군 소장으로 진급했다. 1사단장으로 재임 중이던 1978년에는 제3땅굴을 발견해 부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1979년 3월에는 국군보안사령관에 부임했고, 10월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의 중책을 맡기도 했다. 1980년 6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 같은 해 8월에 육군 대장 진급 및 예편을 했다.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1981년 3월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후 대통령직에서 퇴임했다. 이후 백담사 유포, 청문회 출석, 재산 몰수, 재판 및 수감 등 험난한 풍파에 맞서면서도 일체의 변명 없이 30년 가까운 인고의 세월을 보내왔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표 3>의 ‘책 소개’에는 본 연구자가 밑줄을 친 것처럼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5.18 광주사태’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표 4>의 ‘저자 소개’에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6 쿠데타’ 사건에 대하여 ‘5.16 혁명’이란 표현을 사용할 뿐 아니라, 전두환 본인이 이후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이며, 대통령직 퇴임 이후 어떠한 법률적 판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험난한 풍파에 맞서면서 일체

의 변명 없이 30년 가까운 인고의 세월을 보내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두환의 행적에 대하여 공적 위주로 서술하며 이른바 ‘주례사 비평’과 같이 긍정적 묘사로 일관하고 있다. 둘 다 ‘인터넷 교보문고’가 제공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표 5> NAVER 책 정보: 『전두환 회고록』 출판사 서평

<p>출판사 서평</p> <p>격동의 대한민국을 담아낸 당대의 역사서!</p> <p>『전두환 회고록』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부터, 12·12 사태, 5·17, 5·18 광주사태 등 긴박했던 대한민국 격동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범 김재규와 공모한 정승화 참모총장의 연행으로 빚어진 일부 장군들의 반란과 진압, 3김 씨와 학원소요로 상징되는 혼돈의 1980년도의 국내 상황과 5·18 광주사태에 얽힌 논란과 진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의 고뇌에 찬 사임과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2권 『청와대 시절(1980~1988)』에는 1980년대를 이끌어간 5공화국의 국정 수행 기록이 담겨 있다. 최초의 무역수지 흑자시대 진입, 한국형 원자력 기술 개발의 성공, 중산층 확대를 위한 다양한 경제 시책들부터 다양한 규제 해제(연좌제 금지, 통행금지 해제, 교복 자율화 등)를 통한 열린 사회의 시작을 돌아볼 수 있다. 한편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아웅산 테러 사건, KAI기 폭파 사건 등 무수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 안보를 공고히 하며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이양을 일궈내기까지 혼신을 다해 수행한 국정의 기록을 정리했다. 3권 『황야에 서다』는 어려운 유년시절부터 육사생도 시절을 거쳐 한 가정을 일구기까지의 평화로움 삶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치인들에 의해 시작된 역사 뒤집기에서 비롯된 백담사 유폐와 재판, 재산 몰수 등 거듭된 역경과 고난의 행로를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다.</p> <p>역사가 불러냈던 한 인물의 존재와 삶은 어느 순간 하나의 역사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고록은 한 개인 전두환의 삶의 궤적을 적어놓은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격동기 대한민국의 현대사이고, 지금도 그 실제적 진실에 관한 논란과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당대의 역사서다. 역사는 신화가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더라도 제대로 바라보고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진정한 역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이 책은 또 다른 혼돈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의미를 전달해줄 것이다.</p> <p>[인터넷 교보문고 제공]</p>
--

<표 5>에 보는 바와 같이, NAVER ‘책 정보’ 내 ‘출판사 서평’은 별도 메뉴로 제공되는 ‘출판사 서평’의 내용과 동일하며, 역시 제공자는 ‘인터넷 교보문고’이다. ‘출판사 서평’은 분명히 출판사가 작성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책 소개’와 ‘저자 소개’는 ‘인터넷 교보문고’가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작성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판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내용인지, ‘인터넷 교보문고’가 자체 작성한 내용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책 소개’, ‘저자 소개’ 및 ‘출판사 서평’에서 사용된 용어와 논조는 매우 유사하다.

3) 알라딘 제공 정보

추가정보의 출처가 알라딘 인터넷 서점인 공공도서관은 3개관이다. 이들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¹⁰⁾ OPAC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2권과 3권의 서지레코드만 검색된다. 정독도서관은 앞에서 언급한 『전두환 회고록』대출 관련 논란에 일찍부터 개입되었기 때문에 1권을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OPAC에는 서지레코드가 노출되지 않았다. 2권과 3권의 서지레코드에 모두 ‘자료실명: 인사자실서고2(직원에게 신청)’, ‘도서상태: 대출불가’로 명시함으로써 이 책들도 도서관 내에서도 제한적 접근 및 열람만을 허용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도서관 OPAC은 서지정보 및 소장위치 정보 하단에 보장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 내용은 ‘책 소개’, ‘저자 소개’, ‘목차정보’, ‘태그 클라우드’, ‘서평 작성’으로 구성되며, ‘도서 DB 제공: 알라딘 인터넷 서점’으로 출처를 명시하고 있다. ‘책 정보’는 책 표지 이미지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간략히 소개되어 있으며, ‘저자 소개’는 ‘저자: 전두환’으로만 간단히 적고 있다.

하지만 하단의 ‘도서 DB 제공: 알라딘 인터넷 서점’ 옆의 [도서정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알라딘 인터넷 서점 사이트¹¹⁾로 링크되며, 정독도서관 OPAC의 서지레코드에서 본 것과 동일한 ‘책 소개’, ‘목차’, ‘저자 및 역자 소개’와 더불어 ‘출판사 제공 책 소개’ 및 책 본문에서 인용한 ‘책속에서’ 등을 볼 수 있다.

『전두환 회고록』을 소장한 125개 공공도서관들 중 19개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OPAC에서 이 책이 검색되지 않게 하였고, 소수이지만 서지정보 외 보장 콘텐츠까지 제공하는 도서관이 15개관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도서관 OPAC에서 그 정보의 공급자가 어디이든 거의 유사하게 출판사가 제공한 내용으로 저자 전두환과 『전두환 회고록』의 내용을 정당화 및 미화하고 있다.

2. 『반일 종족주의』의 사례

이영훈 등저 『반일 종족주의』는 일제강점기 역사의 해석에 대한 저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수많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전두환 회고록』과 달리 아무런 법적 판결을 받은 바가 없고, 도서관에서의 대출이나 열람 제한 등이 공식적으로 요구된 바가 없다. 실제로 개별 도서관 OPAC을 조사하는 과정에 다수의 도서관에서 이 책은 대출중이며 예약 대기 중인 이용자 수도 최대 인원수를 채우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주장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이 책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관심 대상임을 볼 수 있었다.

『반일 종족주의』는 2019년 9월 24일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

10)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 <<http://jdlib.sen.go.kr/jdlib/intro/search/>> [인용 2019. 11. 2].

11) 알라딘. “전두환 회고록 2-청와대 시절.”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07076915>> [인용 2019. 11. 2].

NET)’에 3개의 별개 저작번호를 갖고 있는 3건의 서지레코드가 수록되어 있으며, 소장 도서관은 모두 260개에 이른다. 동일한 책에 3건의 서지레코드가 중복 작성되어 있고, 소장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KOLIS-NET과 같은 종합목록의 관리 상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논외로 하고, 여기에서는 전체 소장 도서관의 서지레코드와 보강 콘텐츠 제공 현황만을 살펴보았다.

앞서 『전두환 회고록』을 소장한 도서관들의 대다수가 OPAC에서 책 자체의 검색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반일 종족주의』의 서지레코드는 도서관 홈페이지가 없거나 기술적 이유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22개 도서관을 제외한 238개 도서관 OPAC에서 검색되어, 개별 도서관 OPAC이 제공하는 보강 콘텐츠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더 적합한 대상이 되었다.

가. 보강 콘텐츠의 제공

<표 6> KOLIS-NET 서지레코드: 『반일 종족주의』 [검색: 2019년 9월 24일]

레코드번호	저작번호	분류기호	소장도서관(개)	보강 콘텐츠 제공 도서관(개)	홈페이지 불 가/미상
1	UW20202270640	340.911	50	36	0
2	UW20202235590	309.111	15	10	0
3	UW20202267221	309.111	195	94	22
-	합계	-	260개	140개	22개

<표 6>에 보는 바와 같이 KOLIS-NET에는 『반일 종족주의』의 서지레코드가 3건 수록되어 있고, 레코드 1(UW20202270640)은 50개 도서관, 레코드 2(UW20202235590)는 15개 도서관, 레코드 3(UW20202267221)은 195개 도서관이 각각 소장을 링크하고 있다. 이 책을 소장한 260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98개 도서관(37.7%)은 기본적 서지정보만 제공하였고, 140개 도서관(53.8%)이 서지정보 외 추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악문화관 도서관 등 22개 도서관(8.6%)은 홈페이지 접근 불가 등 이유로 검색이 가능하지 않았다.

기본적 서지정보만 제공하는 98개 도서관 가운데, 예를 들어, 부산시립도서관의 부산시통합검색 시스템¹²⁾에서는 모두 32건의 『반일 종족주의』 서지레코드가 검색된다. 이 책의 서지레코드에서 ‘도서의 상세내용’에는 표제, 저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표준번호, 분류기호 필드만 포함되며, 서평이나 책 소개 등 보강 콘텐츠는 제공되지 않는다. 경기도 김포시 중봉도서관¹³⁾은 검색결과 서지정보에 ‘책 소개’ 필드를 포함하고 있으나, 아무런 정보를 포함하

12) 부산시립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

<<https://library.busan.go.kr/ysbooks/book/search/collectionOfMaterialsView>> [인용 2019. 9. 27].

13) 김포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gimpo.go.kr/>> [인용 2019. 9. 29]

지 않고 있다. 이 도서관이 사용하는 K-CMS 자료검색 시스템은 검색결과 개별 서지정보를 서명, 저자명, 발행자, 발행연도만 제공하며, 테이블 형식으로 청구기호, 소장처, 자료실, 등록번호, ISBN, 예약가능여부, 총서명/총서번호, 부록정보 및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나. 보강 콘텐츠의 출처

<표 7> 『반일 종족주의』 : 보강 콘텐츠의 출처 [검색: 2019년 9월 24일]

	알라딘	네이버	다음	E-CIP	미상	합계
도서관(개)	48	38	5	3	46	140
비율(%)	34.3%	27.1%	3.6%	2.1%	32.9%	100%

서지정보 외 보강 콘텐츠를 제공하는 140개 도서관에서 추가정보의 출처는 <표 7>에 보는 바와 같다.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서 추가정보를 가져오는 도서관이 48개관(34.3%), NAVER 38개관(27.1%), 다음 5개관(3.6%), E-CIP 3개관(2.1%)이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도서관이 46개관(32.9%)이다. 이처럼 추가정보의 출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서지레코드에서 추가정보를 보여주는 방법은 조금씩 상이하였다.

첫째, 추가정보를 서지레코드에서 직접 보여주지 않고, ‘외부정보’ 등 별도 필드에서 링크하여 보여주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포항시립도서관¹⁴⁾은 서지레코드의 표제, 저자사항 등 기본 서지정보 필드 외 ‘외부정보’ 필드를 추가하여 ‘알라딘 정보보기’를 링크해 준다. 따라서 이용자가 검색한 서지레코드에서는 직접 책 소개나 서평 같은 보강 콘텐츠를 볼 수 없으며, ‘외부정보’ 필드에서 ‘알라딘 정보보기’를 선택해야만 링크된 사이트에서 목차, 책 속의 인용문, 추천 글, 저자 및 역자 소개, 출판사 제공 책 소개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용자가 서지레코드에서 직접 추가정보를 볼 수 없지만, 원하면 외부 소스로 연결이 가능하다.

둘째, 서지레코드에서 직접 보강 콘텐츠를 전부 혹은 일부만 보여주며, 외부 소스로는 연결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앞서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하여 언급된 양산시립도서관은 서지레코드 내에서 청구기호, 소장처, 자료실, 대출가능여부, 등록번호, ISBN, 예약가능여부, 총서명/총서번호, 부록정보 필드들과 더불어 ‘책 소개’ 필드만을 추가정보로 제공한다. 『반일 종족주의』의 ‘책 소개’는 다음과 같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억과의 투쟁, 그 진실된 역사에 대한 명쾌한 응답!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거짓말로 쌓아올린 사머니즘적 세계관의, 친일은 악(惡)이고 반일은 선(善)이며 이웃 나라 중 일본만 악의 종족으로 감각하는 종족주의. 이 반일 종족주의의 기원, 형성, 확산, 맹위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14)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phlib.pohang.go.kr/>> [인용 2019. 9. 29].

‘책 소개’는 이처럼 완결되지 않은 인용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 출처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 도서관이 『전두환 회고록』의 경우와 같이 책 본문의 인용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책 소개’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지만, 또 다른 어떤 도서관들은 이런 내용을 야에 ‘서평’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화성시립도서관¹⁵⁾은 서지레코드에 ‘서평정보’ 필드만을 추가하여, 위에 인용한 양산도서관의 ‘책소개’와 동일한 내용을 ‘서평정보’ 필드에 소개하며, 정보의 출처 및 공급자를 명시하지 않았다. 서울 중랑구립정보도서관¹⁶⁾도 상세레코드 하단에 ‘서평정보’로서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서지레코드와 함께 책 소개를 포함한 여러 보강 콘텐츠를 추가정보로 바로 보여주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22개 공공도서관 통합자료검색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2019년 10월 27일 기준 『반일 종족주의』 서지레코드 29건이 검색된다. 이 가운데 정독도서관 OPAC의 서지레코드는 기본 서지정보 아래 추가정보는 ‘책 소개’, ‘저자소개’, ‘목차 정보’, ‘서가 옆 자료’, ‘다른 기관 소장정보’, ‘태그 클라우드’ 및 ‘서평 작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단의 ‘도서 DB 제공: 알라딘 인터넷서점(www.aladin.co.kr) [도서정보 자세히 보기]’에서 [도서정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함으로써 알라딘 인터넷 서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책 소개’는 책 표지 이미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거짓말로 쌓아올린 사머니즘적 세계관의, 친일은 악이고 반일은 선이며 이웃 나라 중 일본만 악의 종족으로 감각하는 종족주의. 이 반일 종족주의의 기원, 형성, 확산, 맹위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고발하고 그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한 책이다.”

상기한 내용은 서지정보 아래쪽에 바로 이어지면서 따옴표 없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 정보가 도서관이 서지레코드의 일부로 직접 작성한 것인지 외부에서 가져온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없다. 화면 맨 아래쪽까지 보면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서 가져온 정보임을 알 수 있고, [도서정보 상세보기]를 클릭해서 알라딘 인터넷 서점 사이트로 이동하면, ‘출판사 제공 책 정보’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러한 책 소개를 도서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이용자는 서지레코드에서 어떤 정보까지 도서관이 작성하는지 확실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출판사가 제공한 홍보성 인용문 내용을 도서관 OPAC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서지레코드에 바로 이어 보강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주시 웅진도서관¹⁷⁾의 사례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다. 이 도서관 OPAC은 책 제목, ISBN, 작가, 발행자 등 기본적인 서지정보 필드들에 추가로 ‘북링크’ 필드에서 QR 코드 보기, DAUM 책 연결, 및 MARC 보기까지 연결된다.

15)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hscitylib.or.kr/>> [인용 2019. 9. 29].

16) 중랑구립정보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jungnanglib.seoul.kr/>> [인용 2019. 9. 29].

17) 공주시 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gongjilib.go.kr/html/kr/>> [인용 2019. 11. 5]

공주시 도서관
GONGJU MUNICIPAL LIBRARY

로그인 | 홈

MY PAGE search 반일 종족주의 검색하기

도서관선택

서지정보 | 서평정보 | 소장정보 | 연령별 선호도 | 같이 빌려본 책 | 같은 주제별 책 | 같은 저자의 책

● 서지정보

반일 종족주의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제목 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품목
 ISBN 9789970873268
 작가 이영훈 지음
 발행자 미래H
 발행년 2019
 정가 20000 원
 자료구분 일반자료
 배제구분 인쇄자료(책자형)
 형태사항 도서
 복령크
 QR코드보기 | DAUM 책 연결 | MARC

SNS
 소장위치 인쇄

● 서평정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억과의 투쟁 그 진실된 역사에 대한 명쾌한 응답"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거짓말로 쌓아올린 사머니즘적 세계관의친일은 악랄하고 반일은 선봉이며 이웃 나라 중 일본만 악의 종족으로 감각하는 종족주의 이 반일 종족주의의 기원 형성 확산 발위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고발하고 그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한 바른 역사서지급 우리는 지금 이 나라는 경제 정치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언제 가시화할지 모를 잠재적 위기가 그로 인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하고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 모든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악성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실태와 특질을

● 같은 책 소장정보

번호	도서관명	소장위치	평가기호	등록번호	대출상태	반납예정	예약횟수	예약
1	공주시 강북도서관	강북 종합자료실	340.911-0164 나	EM0000078737	대출중	2019/11/09	0	로그인
2	공주시 웅진도서관	U-도서관(스마트도서관)	340.911-0164 나	UL0000000721	비치중		0	로그인
3	공주시 웅진도서관	웅진일반자료실	340.911-0164 나	AD0000119732	대출중	2019/11/19	0	로그인

<그림 1> 공주시 웅진도서관 반일 종족주의 서지레코드(부분) [cited 2019. 11. 5]

이 도서관은 서지레코드에 바로 서평정보, 같은 책 소장정보, 연령별 선호도, 이 책과 같이 빌려본 책, 이 책과 같은 주제별 책, 같은 저자(동명)의 책 등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의 서지레코드(부분)에서 '서평정보' 필드의 내용은 앞서 인용한 양산시립도서관이나 서울시교육청 정독도서관의 책 소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복령크' 필드에서 'DAUM 책 연결'은 직접 링크가 끊어져 있고, 다른 경로로 검색해낸 'DAUM 책 공식 블로그'¹⁸⁾는 2018년 11월 1일자로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DAUM 책 공식 블로그. "[공지] Daum 책 서비스 종료 안내. 2018. 10. 10."
 <https://daumbook.tistory.com/entry/> [인용 2019. 11. 5].

The screenshot shows the library's OPAC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with '전체' (All) selected and a '검색'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are navigation tabs: '도서' (Books), 'DVD', '공개 책장' (Open Shelves), '재미있는 도서관' (Interesting Library), and '내 서재' (My Shelf). Under '도서', there are sub-tabs for '도서', '베스트도서', '신착도서', and '희망도서신청'.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book '반일 종족주의: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Anti-Japanese Racism: The Origin of the Crisis of the Republic of Korea) by Lee Myeong-hun. The book cover is on the left, and the title and author information are on the right. Below the title, there is a list of details:

- 제어번호: KMO201902619
- 표제/책임표시사항: 반일 종족주의: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 이명훈 외 지음
- 발행사항: 서울: 미래H(미래사), 2019
- 형태사항: 413 p. : 삽화; 21 cm
- 주기사항: 공저자: 김낙년, 김용삼 기타표제: 한자표제: 反日 種族主義 참고문헌 (p.393-398)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087326803910 ; ₩2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940.911

 There are buttons for '도서정보 상세보기', 'MARC보기', and '내서재 담기'. Below this is a '소장정보' (Collection Information) table:

예약	청구기호	등록번호	권수	자료실	배치구분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하기	340.911-이명훈부	000000324665		[중앙]종합자료실	인쇄자료(책자형)	관외 대출중 (예약0명)	2019-11-11

 Below the table, there is a note: '대출상태가 대출중인 책만 예약가능하며 한 책에 3명까지 예약가능합니다. 도착안내는 핸드폰 문자로 전송됩니다.' Below this is a '상세정보' (Detailed Information) section with a '도서정보 상세보기' button. The text reads: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억과의 투쟁, 그 진실된 역사에 대한 명쾌한 응답!”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거짓말로 쌓아올린 사머니즘적 세계관의, 친일은 악(惡)이고 반일은 선(善)이며 이웃 나라 중 일본만 악의 종족으로 감각하는 종족주의, 이 반일 종족주의의 기원, 형성, 확산, 행위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At the bottom, there is a '해당 도서가 담긴 책장' (Shelf containing this book) section with an '이전' (Previous) button.

<그림 2> 구미시립도서관 반일 종족주의 서지레코드 [cited 2019. 11. 5]

NAVER에서 보강 콘텐츠를 가져온 사례는 <그림 2>의 구미시립도서관 OPAC에서 볼 수 있다. 구미시립도서관 OPAC의 서지레코드는 기본 서지정보 외 추가로 '상세정보'는 따옴표 안에 인용된 몇 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출처는 표시하지 않았다. 대신 서지정보 아래 쪽과 '상세정보' 필드 오른쪽에 '도서정보 상세보기'가 있고, 이 링크를 통해 'NAVER 책'19)으로 연결된다. 여기에서는 앞서 『전두환 회고록』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책 정보' 등 필드가 있지만, 그 안의 '책 소개'는 출판사가 제공한 것이며, '출판사 서평'은 인터넷 교보문고가 제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출판사가 제공한 내용 그대로이다.

넷째, 복수의 정보원을 연결하는 도서관이 있다. 예를 들어, 충북 증평도서관²⁰⁾은 서지레

19) 네이버. 책 정보.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048246> [인용 2019. 11. 5]

코드 아래쪽 ‘상세정보’에 책 정보 일부와 ‘도서정보 상세보기 [NAVER 제공]’으로 링크 하고, 목차와 참고문헌은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제공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NAVER 링크에서 ‘책 정보’는 출판사가 제공하는 내용이고, ‘출판사 서평’ 또한 ‘책 정보’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인터넷 교보문고’가 제공하는 것으로 수록하고 있다. 결국 독립적 서평은 없이, 모두 출판사가 제공한 내용에 근거한 자료들이 서지레코드에 연결되는 것이다.

IV. 맺음말

이 연구에서 2019년 9월-10월 기준, KOLIS-NET에서 『전두환 회고록』과 『반일 종족주의』 소장이 확인된 공공도서관 OPAC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두환 회고록』은 125개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으나, 단 19개 도서관 OPAC(15.2%)에서만 검색되었고, 이들 중 15개 OPAC의 서지레코드에 알라딘 인터넷 서점, NAVER 등이 제공하는 보강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반일 종족주의』는 소장한 260개 공공도서관 OPAC에서 모두 검색되며, 이들 중 140개 도서관 OPAC(53.8%)의 서지레코드에 서지정보 외 보강 콘텐츠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들은 보강 콘텐츠를 서지레코드 내 추가 필드로서 직접 제공하기도 하며, 외부 정보 출처로 링크만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드러났다.

첫째, 서지정보 외 보강 콘텐츠를 제공하는 도서관 OPAC에 추가정보의 출처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OPAC에서 검색한 서지레코드의 내용을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외부에서 가져온 것인지 잘 알기 어렵다. 따라서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추가정보에 서술된 내용을 도서관의 의견으로 간주하거나, 적어도 도서관이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도서관 OPAC이 제공하는 보강 콘텐츠의 추가정보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그림 2>의 『반일 종족주의』 서지레코드에 포함된 내용은 단순한 본문의 인용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평정보’와 ‘상세정보’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출판사가 제공한 본문의 인용일 뿐, 서평도, 책 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필드 명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도서관 OPAC에서도 정확한 명칭을 붙여주지 않고 있다.

셋째, 도서관 OPAC이 제공하는 보강 콘텐츠의 출처가 어디이든 결국은 동일하게 출판사가 공급하는 내용을 보여줄 뿐이다. 어느 도서관에서도 출판사의 홍보성 콘텐츠 외 사서, 학자, 서평가 등 다른 전문가의 분석이나 평가를 제공하지 않았다. 『전두환 회고록』이나 『반일 종족주의』와 같이 특별히 논란이 된 책들에 대해서는 더욱 객관적 서평 및 일방적 주장에 대한 반론이

20) 증평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jplib.go.kr/>> [인용 2019. 9. 29].

되는 정보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제공한 정보만 추가한 것이다.

『전두환 회고록』과 『반일 종족주의』, 단 두 권의 책 사례를 갖고 모든 도서관 OPAC의 모든 자료에 대한 보강 콘텐츠의 내용에 대하여 일반화하긴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논란이 되는 책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단서로는 충분하다.

공공도서관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다룬 자료를 수집하지만, 엄격한 자료 선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거짓과 왜곡을 포함한 자료를 배제할 책임을 가진다. 자료 선정에서 주제와 내용 측면에서 정보의 정확성은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특히 정치서는 왜곡된 주장이 많음에 따라, “편견이 개입된 독단적, 논쟁적, 당파적 자료는 반대 입장을 취하는 자료와 함께 선정”하고, “선전용이나 고정 관념적이고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있다. 역사서 또한 “저자의 편견이 가장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신중히 고려한 자료 선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09, 116-121).

물론 도서관들이 『전두환 회고록』이나 『반일 종족주의』같은 책들을 도서관 장서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그 주장에 동의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이런 책이라도 관심을 갖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정했다고 보는 것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책의 소장은 또한 어떤 시대에도 역사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자기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기억조차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설명이 필요하다.

도서관이 이런 책들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장서에 편입시키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또한 도서관 OPAC이 이른바 보강 콘텐츠를 통해 저자 및 출판사의 입장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료와 관련된 논란이나 왜곡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미해진다면, 언젠가는 『전두환 회고록』이나 『반일 종족주의』같은 책들의 주장이 정당성을 가졌기 때문에 도서관에 소장되었다고 인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이처럼 논쟁적이거나 왜곡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담은 자료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뿐 아니라, 이용자가 그 자료에 관하여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길잡이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책이 도서관 장서에 어떤 근거로 의미가 있는지도 기록해 두고,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도서관이 선정하는 모든 자료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논란의 대상인 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공공도서관 OPAC이라는 공식적 도구를 통해서 책에 관한 기본적 서지정보의 보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도서관이 보강 콘텐츠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 및 평가하며,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려면, 자료 선정에 들이는 노력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 점검이 필요하다. 모든 책에 관하여 NAVER 책이나 다음, 알라딘 인터넷 서점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일일이 검증하기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문제시 되는 책들만이라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가 제공하는 홍보성 글이거나, 심지어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서 역사의 왜곡을 정당화하는 주장까지 그대로 OPAC에서 제공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보강 콘텐츠를 제공할 때, 가능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대한 의존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업적 목적을 지닌 출판사들과 공생하는 영리 기업인 포털이 도서관 이용자에게 객관적이며 공익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포털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는 출판사 홍보 게시물을 도서관 OPAC에서 굳이 보여줄 가치가 있을지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만약 출판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보성 글이나 본문의 인용문을 종종 출처나 인용 표시도 없이 포함시키거나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의견이나 입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배제해야 한다.

셋째, 오늘날 도서관 OPAC은 단순한 소장 자료의 검색 도구가 아니라, 도서관을 통해 접근 가능한 모든 지식자원으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자료 이해와 선택을 위해 보다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포털 같은 외부 소스에 링크하거나, 하나의 상품으로 보강 콘텐츠를 판매하는 공급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기보다, 사서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강 콘텐츠를 평가하여 선별하거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서평 등을 직접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도태현, 정영미. 2013. 대학도서관의 차세대 OPAC 기능 채택과 확산 현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197-215.
- 유영준. 2011. 차세대 도서관 목록에서의 패킷 내비게이션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3): 13-30.
- 유영준. 2013. 국내 대학도서관 OPAC의 패킷 내비게이션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2): 189-205.
- 윤정욱. 2014.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제반 기능에 관한 분석 - SearchWorks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5-23.
- 한국도서관협회. 2009. 『도서관 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Breeding, Marshall. 2004. "Integrated Library Software: A Guide to Multiuser, Multifunction Systems." *Library Technology Reports*, 40(1): 1-88.
- Calhoun, Karen, et al. 2009. *Online Catalogs: What Users and Librarians Want: An OCLC Report*. Dublin, Ohio: OCLC.

- Deodato, Joseph. 2015. "Evaluating Web-Scale Discovery: A Step-by-Step Guide." *Information Technology & Libraries*, 34(2): 19-75.
- Hofmann, M.A. and Yang, S.Q. 2011, "How Next-generation: a Review of Academic OPAC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Computers in Libraries*, 31(6): 26-29.
- Hofmann, M.A. and Yang, Sharon Q. 2012. "Discovering What's Changed: A Revisit of the OPACs of 260 Academic Libraries." *Library Hi Tech*, 30(2): 253-274.
- Stainforth, Elizabeth. 2016. "From Museum to Memory Institution: The Politics of European Culture Online." *Museum and Society*, 14(2): 323-337.
- Yang, S.Q. and Hofmann, M.A. 2011. "Next Generation or Current Generation? A Study of the OPACs of 260 Academic Libraries in the USA and Canada." *Library Hi Tech*, 29(2): 266-300.
- Yang, S.Q. and Hofmann, M.A. 2010. "The Next Generation Library Catalog: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ACs of Koha, Evergreen, and Voyager." *Information Technology & Libraries*, 29(3): 141-150.
- Yang, S.Q. and Wagner, K. 2010. "Evaluating and Comparing Discovery Tools: How Close Are We Towards Next Generation Catalog?" *Library Hi Tech*, 28(4): 690-709.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Doh, Tae-Hyeon, and Jung, Young-Mi. 2013. "A Study on the Next Generation OPAC Functionalities Diffusion Status and Adoption by Academic Libraries."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197-215.
- Korea Library Association. 2009. *Library Handbook*.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Yoo, Yeong-Jun. 2011. "A Study on Faceted Navigation in Next-Generation Library Catalo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13-30.
- Yoo, Yeong-Jun. 2013. "Analyzing Faceted Navigations of OPAC i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189-205.
- Yoon, Cheong-Ok. 2014. "An Analysis on the Functions of the Next Generation Library Catalog: With a Focus on Search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4): 5-23.